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05년 7월 중대에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섬을 뒤덮은 수림과 병영을 감싸고있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 나무가 짝 찢었다고, 봄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림화, 원림화, 파수원화가 훌륭히 실현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화력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해상에서 철저히 소멸할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섬방어대들에 강력한 화력타격수단들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력타격수단들의 배치와 진지설비 그리고 린접과의 화력협동, 화력임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콩창고, 축사, 무난방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가족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물을 떠나 외진 섬에 살림을 펴고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도와주느라 늘 수고 많은 섬초소 군인가족들을 더 잘 돌봐주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사정치사업 성과의 비결은 해당 단위의 지휘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곳 중대지휘관들의 일삼고와 일육심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 잘하기 바란다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프락과 잇닿아있는 동해관문의 전초기지인 신도방어중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변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부두가로 달려나와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고 또 부르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중훈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새 기술개진한 군부대의 풍력 및 태양빛

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전소를 돌아보니 정말 기쁘다고, 멋있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내놓고 자랑할만 한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와 국가과학원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빛,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기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 건립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도표식비와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비행훈련실, 2대대 비행강실을 돌아보시면서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들이 컴퓨터에 의한 비행조종훈련습기계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아주시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것이 좋다고, 모든 비행사들이 공중에서 비행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훈련을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와 함께 훈련기재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행사침실, 세면장, 콩창고, 식당, 취사장, 반공룡식온실, 버섯재배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이 깃든 추격기 109호기를 비롯한 군부대의 추격기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정상적인 전투동원태세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당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를수 있게 준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전투비행사들,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군부대지휘관들에게 자신께서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화장품과 식료품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비행사안해들에게 3.8절을 축하하는 최고사령관의 인사와 함께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사랑과 믿음속에 영생하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3월 19일은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선생이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날이다.

22년전 그날 분계연선도시 개성과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는 모진 고통과 악행을 이겨내고 통일신념의 승리가 되어 돌아오는 리인모선생을 맞이하여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거리거리는 꽃다발을 들고 환영나온 각계층 군중들로 하여 꽃물결을 이루었다.

통일애국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가 체포되어 무려 34년간의 모진 옥고를 치르고 살아서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며 꺼져가던 생명이 공화국의 품에서 14년간이나 기적적으로 이어지며 영생의 삶을 꽃피운 것은 하늘이 준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통일애국의 길에서 신념과 의리를 지켜싸우는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30여년간의 옥중생활끝에 남쪽의 쓸쓸한 양로원을 거쳐 남해가의 한 농가에 얹혀살고 있던 그를 조국의 품에 데려 오시려고 몇년동안이나 마음을 쓰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리인모선생이 돌아오는 날에는 그가 판문점분리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병약한 품에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을 두고 심려하시며 만단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하여 하늘에는 직승기가 날고 땅에는 구급소생차가 달리는 생명구조작전의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다.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선생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2(1993)년 7월

그가 조국의 품에 안겨 10여년 세월 생명을 부지해온 것은 최선의 의로조 건과 명약의 효과로만 생 각할수 없다.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리인모선생에게 90장수의 생명을 준 결정적비결은 그의 억만세포를 활력에 뛰게 한 비상한 정신력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의 삶은 해수로 14년간이었지만 리인모선생은 그 14년세월에 유년시절로부터 청춘시절, 장년기의 감정정서를 다 느끼는 남다른 체험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옛 파발리소학교를 찾아 칠 부지시절 파발강에서 물장구 치던 동화의 꿈세계에도 잠겨 보게 하고 안해와의 지킴이 못한 약속을 헤아리시어 친히 선물로 피아노를 보내주시어

신혼시절의 감미로운 사랑도 되새기게 하시었다. 차디찬 감방에서 추위에 떨던 그의 지난날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어 인민들이 자신게 지성담아 올린 선물새털이불도 리인모선생에게 보내주시어 아버지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그에게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라는 가장 값높은 인생평가를 주신 데 이어 생일 80돐에는 공화국 2중영웅의 영예를, 그 영광

바로 그 사랑의 가슴에 조국통일상까지 안겨주시었다. 그가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을 때에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그를 영생의 언덕에 높이 세워주시었다.

인민장이라는 새로운 장의 형식을 내오도록 하시고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궁전에서 인민장을 크게 하도록 하시였으며 애국렬사릉에 령구를 안치하도록 하는 특전을 배풀어주시었다.

오늘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선생의 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더욱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리인모선생의 부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를 다시금 뜨겁게 추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받아안도록 신념의 인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영웅이라고 하시며 온 나라가 그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부인을 리인모선생과 함께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었다.

영웅의 삶은 위인의 손길아래서만 영생을 누릴수 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을 키우며 그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는것이다.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주신 믿음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 그는 오늘날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온 나라 인민들, 온 겨레에게서 떠받들리우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 령장의 담력과 배짱 ||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

두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 감시소에서 적정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방내에서 적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새로운 해상작전규정도 비준하시었다. 적아간의 대립이 가장 예민한 수역에서 적들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신 그이께서는

속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찍하면 예민한 열점 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하고있는 적들을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하시었다. 일단 명령이 내리면 적들의 허리를 부러뜨리고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아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전쟁맛을 제대로 보여주라라고 강조하시었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지난해 7월 인민군대의 각 군종부대들의 섬상륙전투훈련이 있었다. 훈련을 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력강화의 기본인 훈련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었다. 전군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하늘과 땅, 바다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지금 신성한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은 한줌도 못되는 적들때문에 때없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이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번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것이라고 단호히 언명하시었다.

반미대결전의 총결산

지난 2월에 있는 인민군대의 섬화력타격 및 점령을 위한 연습때였다. 해당 지휘관의 결심보고 청취로부터 연습개시명령하달 그리고 훈련결과총화에 이르기까지 연습전과정을 조직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융양처럼 끓어번

지게 하여 모든 군인들을 떨떨 나서는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키고 모든 부대들을 강철의 군위부대로 만듦으로써 일단 적들이 덤벼들면 미처 정신차릴새없이 목사발 만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만 옛날 한 사냥군이 밤길을 가다 큰 범을 만나자 급히 활에 살을 메워 쏘았다. 그런데 그 범이 까딱 움직이지 않아 조심히 다가가 보니 범갈이 생긴 커다란 바위였다. 바위를 보고 놀란것이 어이없고 또 바위에 화살이 박힌것이 하도 신기하여 그는 다시 《범》을 향해 화살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화살이 바위에 맞고 튕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도 그 사람이요 활도 그 활에 똑같은 화살인데.

사람에게서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이야기이다.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적과 싸우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정신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 군대가 강한가 약한가는 우선 군인들의 사상정신력에서부터 결정된다. 공화국의 군대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사상과 도덕의 강군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2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로서 이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최강의 무기인 사상의 힘, 도덕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해 가르치시었다. 돌이켜보면 백두산총대의 승리의 전통은 적대세력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한 전통이다. 이 나라의 항일선렬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장기간의 유격전에서 끝끝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을 해방하였다.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항일투사들의 가슴속에 타고온 억척만만 죽더라도

결사투쟁을 결심하고 용사들... 공화국의 군대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지시라면 단숨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운다. 거처는 날바다를 가로지르며 대규모군문을 일떠세운것도 인민군대이고 단숨에의 정신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희한한 스키장을 건설한것도 공화국의 군대였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평양육아원과 애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 사랑의 창조물들

사상과 도덕의 강군

도 군대가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앞장에서 서서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한것들이다. 지금 공화국의 바다들에 수놓아지는 황금해의 새 력사도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군대에 의해 창조되고있다. 공화국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다. 최고사령관은 병사들을 쉬임없이 찾아가며 주시수 있는 사랑과 믿음 다 배풀어주고 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을 친아버이로,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른다. 그속에서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전우부대, 동지부대가 되고 병일치, 군일치의 아름다운 미풍은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끝까지 해치려는 미국과의 최후대결전이 벌어지는 지금 온 나라 군대는 산악같이 일떠서서 복수와 증오의 화약을 채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이 내리거기를 기다리고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지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본거지를 단숨에 불바다에 잠글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는 이런 사상과 도덕의 강군을 당할 군대는 이 세상에 없다. 김광욱

꺼질줄 모르는 광명을 안겨주며

- 대 동 맹 학 교 에 서 -

평안남도 대동군 와우리의 아담한 산기슭에 시각장애청소년들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대동맹학교가 자리잡고있다.

원래 맹아교육은 맹인 용수지문자를 창안한 프랑스의 맹인교육자 아우이가 1784년에 처음으로 빠리에 맹아학교를 세우고 음악, 수공예를 교육한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445년에 점복교육(점쟁이를 키우는 교육)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어 1894년에 음악과 수공예를 기본으로 하는 평양여자맹아학교가 설립운영되었으며 해방후 1948년 2월 북조선맹인 동맹 중앙위원회의 결성으로 맹아교육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47년간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박홍실(68살)교장의 말에 의하면 대동맹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늘어난 시각장애자들에게 점글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1959년 9월 1일 운산맹학교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 학교는 다음해 11월 평안남도 대동군으로 옮겨졌으며 여기에 피현맹학교, 평양유자녀맹학교가 통합되어 지금의 대동맹학교로 되었다.

장애자들도 사회생활에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대동맹학교를 비롯한 맹학교들에서는 각이한 나이의 시각장애청소년들이 소학반부터 고

급반을 다니는 과정에 일정한 직업기술교육을 받고있으며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희망대로 일하고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예술적소질을 가진 학생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손풍금과 기타,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들을 배워주고있으며 전문가 못지 않은 예술인재로 키워내고있다.

하여 이 학교는 1993년 전국아동음악방송예술축전에서 2차에 걸쳐 1등을, 2008년 11월 제2차 전국특수교육부문기량 발표회 손풍금독주에서 1등을 쟁취한 자랑을 안고있다. 특히 이 학교를 졸업하고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에서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공훈예술가 김명숙의 가야금연주와 장애자

주는 얼마전 영국과 프랑스에서 진행한 평양장애자교류단활동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바울린, 기타 등 9가지 악기를 다루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평양시의 리춘향녀성도 이 학교에서 자기의 음악적재능을 키워나갔다.

강은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앞 못 보는 학생들도 정상사람들과 똑같이 마음껏 배우고 생활할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한점의 그늘도 없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라고 제일 좋은 악기들도 선참으로 보내주시었다. 그 사랑속에서 저는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손풍금을 배우게 되었고 오늘은 조선장애자예술협회에서 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김명숙: 나처럼 행복

한 장애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완전시력 장애자인 저의 가야금연주를 친히 보아주시고 연주를 참 잘한다고 여러차례 과분한 칭찬을 주시었으며 당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연주활동을 마음껏 하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앞 못 보는 저에게 공훈예술가의 명예칭호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안고 비판을 모으며 자기의 재능을 꽃피어나가는 장애자들의 이 목소리에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운 시책이 비껴있다. 꺼질줄 모르는 광명을 안겨주며 오늘도 대동맹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글썽하는 소리와 노래소리, 연주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최대성

고마운 사회

웃고 떠들며 뛰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맹학교들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되새겨진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몸소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맹학교들을 세워주시고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날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자리를 옮겨 수업을 중단없이 계속 되도록 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우리 맹인들을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맹학교에서 제기되는 생활보장과 교육조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정어린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이에 따라 도와 군에서는 해마다 배급과 간장, 된장, 기름 등의 기초식품, 땀감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군은 물론 룡해운성과 외무성을 비롯한 여러 성기관의 지원사업은 계속되어 우리 맹인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았다.

맹인들을 비롯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흘러가는 날과 더불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지난 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원아들은 물론 로인들과 장애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하여 지금 우리 학교는 물론 온 나라의 장애인들에게는 전어, 낚지, 까나리, 멸치, 도루메기 등 사랑의 물고기가 매일과 같이 공급되고있다.

또한 여러 후원단체들에 의한 물질적보장대책이 세워져 우리 학교에는 매일과 같이 각 기관, 단체들이 성의껏 마련한 지원품이 계속 들어오고있다.

날로 더해만 가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고상한 사회적기풍이 차넘쳐 오늘 우리 학교학생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의 나라를 마음껏 펼쳐가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의 공훈예술가 김명숙, 손풍금독주가 강은혁, 여러 악기를 소유한 리춘향 등의 맹



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실례이다.

정녕 병든 자식에게 더 마음쓰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그가 누구든 차별없이 다 품에 안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 일이다.

대동맹학교 교장 박홍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헌신과 열정, 진정된 땀방울로 나타난다.

멀고 험난한 탐구의 길,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들이야말로 헌신과 열정, 진정된 땀방울로 말없이 조국을 떠받드는 애국자들이다. 그러한 과학자들속에는 집안 식구모두가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가정으로 소문이 자자한 리영철선생의 가정도 있다.

과학자가정의 생활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과학으로 나라를 받드는 애국자가정

대하여 알고싶어 봄기운이 완연해진 어느날 기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찾았다. 1호동 3층 1호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단아하고 소박하게 생긴 녀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 하였다.

정이 넘치는 가정

안주인의 안내를 받아 집안으로 들어서니 일요일인지라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있었다. 세대주인 리영철선생은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실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교수, 박사이고 안해인 최정애녀성은 같은 대학 정보기술연구소 연구사로 일하는 박사이다. 리영철선생의 아버지 리근배선생은 오래동안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학부장으로 일해온 권위있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이다. 알고보니 최첨단돌과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다정한 박사부부, 한집안에 3명의 박사가 있는 자랑할만 한 박사가정이었다.

—박사부부, 박사가정, 참 리상적인데요? 《처녀시절에 꿈으로만 여겼던 일이였습니다. 욕망대로 되지 않는것이

과학연구사업이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정애선생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박사논문은 쓸 때의 일이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 애쓰던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데다가 년로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연구사업을 하는 남편의 뒤바라지도 하면서 논문을 쓰자니 시간이 모자랐다. 그런 속에서 완성한 논문이 좋은 평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주저앉고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살뜰하고 다정한 안해로, 마음착한 며느리로, 다심한 어머니로 살고도싶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기에는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나 컸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과학자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시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

과학연구에 필요한 자금도 아낌없이 배려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열정의 샘이 되었다.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겨주고 떠밀어주는 집단의 진정어린 마음이 그를 분발시켰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는 애국자로 살기를 바라며 성실한 방조자로 여주 남편과 집안식구들의 기대에 찬 눈길들이 그를 일으켜세웠다. 분발하여 다시 쓴 논문을 본로교수는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고든 가치가 큰 논문이라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때 주저앉았더라면 오늘처럼 과학자라는 부름앞에 멋지게 서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 가정으로 될수 없었을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인해를 과학의 길로 떠밀어준다는것이 남편으로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대학교정에서 탐구의 열정속에 맺어진 우리들의 인연입니다. 학문속에 빠져들여 열띤 논쟁을 벌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과학자가 될지향이 우리를 결합시켰습니다. 안해는 과학탐구

의 먼길을 함께 가자고 약속한 나의 가까운 동지이고 안해의 성과속에 나의 기쁨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과학자이고 딸도 미래의 과학자로 준비해가는 우리 집안에서 과학연구사업을 중심에 놓고 가정생활이 설계됩니다. 사업에 파묻혔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뜨거워 생활이 즐겁고 때없이 벌어지는 활기찬 론쟁

최첨단과학의 1번수들로

우리는 같은 대학에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 선생들도 만나보았다.

《얼마전에 리영철선생이 생물공학적인방법으로 수확고가 높고 비료를 적게 요구하며 생육기일이

짧고 가물과 비바람, 병충해에 의한 피해에 잘 견디는 새 벼품종을 연구해냈는데 경제효과 파성이 높아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생명과학부 부학부장 강기찬)

《최정애선생은 우리 연구소의 보배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끝까지

열정이 샘솟습니다. 온 집안이 과학탐구의 길에서 탈선을 모르고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파정에 더욱 뜨거워만지는 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의 리상으로 결합되어 서로 뜻과 마음을 합쳐갈 때 갈수록 뜨거운 정이 흘러넘치게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이 들고 마음이 통하면 생활이 즐겁고 기쁘기만 한것이다.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교육자이고 성실한 일군이였습니다.》(수학부 학부장)

《오래동안 학부장사업을 해온 리근배선생님은

리영철실장은 말한다. 인제가 모든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첨단과학기술문제를 우리 과학자들이 한가지씩만 맡아서 풀어제긴다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발전속도가 빨라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경쟁을 걸었습니다.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하는것을 놓고말입니다.》



《최첨단과학의 1번수, 이것이 우리 과학자들이 서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훌륭한 미래상점까지 세워주시고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음쓰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제몫을 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더 커집니다.》

인제가 모든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최첨단과학기술문제를 우리 과학자들이 한가지씩만 맡아서 풀어제긴다면 그만큼 나라의 경제발전속도가 빨라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경쟁을 걸었습니다. 현실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문제를 누가 먼저 해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하는것을 놓고말입니다.》

이 가정에 나란히 걸려있는 3개의 박사매달, 그것은 첨단과학의 제일선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애국의 마음안고 달려온 그들의 고귀한 땀에 대한 나라의 중서이고 표창이다.

자기들의 헌신에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자각을 안고 오늘도 최정애선생은 축산기지의 정보화를 위해 세로문관에서, 리영철선생은 새로운 미생물연구를 위해 현장에서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수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1)



작가 김상훈의 력력

난 날: 1919년 7월 10일
 난 곳: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빈농가정출신으로 4~5살때 남의 집 양아들로 들어가 살았음.
 1940년 4월~1944년 10월까지 학도병사건으로 징용, 원산철도공장에서 노동.
 1944년 10월~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민족해방협동단사건으로 체포, 서대문형무소 사상범미결수로 있다가 나옴.
 그후 잡지 《민중조선》과 신문 《독립신문》 편집장.
 1950년 7월 10일 의용군에 입대, 조선인민군 937군부대 복무, 부상,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조선독립유격대 6지대 정치부 문화과장.
 1951년 조조출판사(당시) 편집부에서 일함.
 1958년~1959년사이 락원기계공장 현지과견.
 1962년 2월~1987년 8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나는 나의 아버지 김상훈의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솔직하게 알려달라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무국장 리미일선생의 청탁을 받고 이 글을 쓴다. 미흡한 점이 많은 이 글을 인터넷에 태워 보내면서 아직 아버지에 대하여 관심을 돌려주시는 재미동포여러분과 남녘동포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서글픈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1954년경이라고 생각된다. 전쟁이 잦았던 그때 평양시 교평면 내리 지금의 칠골사적지 부근에 조조출판사가 자리잡고있었다.

어스름한 저녁 스물일곱의 작고 영민하게 생긴 녀인이 원고결제를 받으려고 편집국장방에 들어갔다. 국장은 녀인과는 대조되게 키가 크고 잘 생긴 사람이었다.

《고향이 어디요?》

《남반부입니다.》

《가족이 함께 후퇴했소?》

《딸만 데리고...》

《나도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자식들도 있고...》

저녁해가 희미하게 토굴집창가를 비추고있었다.

《만약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까지만 함께 살수 있다면...》

슬픈 언약이었다. 이렇게 만난 부부가 30년이 넘게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의 키가 더 자라면

그뻘 되려나

문지방에 닿으면 설마

되겠지

증문에 가지런하면 그때야

되고야말겠지

키돋움도 하게 하고 키낮춤도 하게 하며

안타깝게 기다리며 자래운 이 아들이
 막소서, 서른고개를 넘어 서고있습니다

꿈이 허사인줄 누군들 모르랴만
 그래도 있고 지내는 밤들이 있을가봐
 꿈에라도 오라고 빌면서 잠드는 통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산 부부가 행복했을까? 나는 행복하였다고 단언한다.

보통 틀리로는 도저히 행복할수 없는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였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 시에서 아버지의 가슴을 그리도 아프게 하면서 훌쩍 서른살을 넘기던 자식, 지금은 60살을 넘어서는 작가 김상훈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행복하였다. 어머니(류희정)의 말에 의하면 토굴집의 그날밤 어머니는 딸의 손목을 잡고 언약기념으로 전구 한알을 샀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전구밑에 흑시 떨어져도 깨지지 말라고 전쟁시기에 내내 쓰고다닌 까자크식 털모자를 놓아두었다고 한다.

예순일곱에 생을 마친 사람에게 있어서 지방에서의 2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은 공간이다. 바로 이 2년을 두루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간 작가 김상훈의 불우한 인생》, 《전위시인 김상훈이 붓을 꺾이다》라고 수십년을 두고 비방하는것은 너무함을 지나서 유치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럼 먼저 그 유치함의 끝을

헤쳐본다.

1958년부터 1959년사이에 있는 일이다. 내가 55년생이니까 세살부터 네살때 이야기다. 그때 우리 집은 남신의주어방에 있었고 아버지는 락원기계공장 공기함마공이었다. 김장철에 지금처럼 배추를 길어다준 것이 아니고 밭에서 나누어주었는데 우리 집만은 아버지가 어린 내 어깨에까지 배추통을 얹어주었다. 처음에는 동심에 콩콩 튀던 나였지만 그 많은 배추를 언젠면 다 나물지,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토방에 걸터앉아 쓸쓸히 한숨을 내쉬는 외로운 풍경이었다.

내 기억엔 그 이후에도 평생을 두고 못 하나 박아본적이 없는 아버지였다. 숙명녀대 가사과 중퇴생인 어머니도 아마 그때 대학에서는 배워보지도 못한 가사일에 부닥친것이 확실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집만 속 빼놓을것 같던 그 아버지께서 그 많은 배추를 다 캐서 지고들 들어왔다.

거짓말 같지만 그때 당황하던 아버지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세네살때 일인데도 왜서인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날 개를 잡았다. 엄밀히 말하면 개가 아니라 좀 큰 강아지였다. 아버지께서는 밤길도록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고 아버지는 시를 읊었다. 나는 몰래 부엌에 나가 가마뚜껑을 열었는데 가마안에는 하얀 개대가리만 있었다.

살점은 별로 없어도 따스했다.

이런 따스함이 불우함이라면 할 말이 없다. 아버지는 그 시

절에 우리 나라 고전시가문학의 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한시집과 민요집을 수집편찬 및 번역할 큰 계획을 세웠다.

그때부터 나의 유년시절은 하얀 대님을 가쁘히 맨 할아버지들속에서 흘러갔다. 로인들이 항상 우리 집 안방을 빙 둘러 차지하고 한시도 베끼고 헌책배집도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고있었다.

기능공들보다 세배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때도 듣직해보이는구나
 내가 두드려 만든 탐식
 기증기 회전축이여

모다소리 가볍게 울리면 너는
 와야줄 세차게 감아

우리의 보람처럼 소소리높이
 벽체를, 아름다운 창문을
 웃음과 노래가 꽃밭으로
 피어날

인민들의 행복을 담아 올리
 겠구나

뚜렷이 가슴에 안겨온다
 블록을 매달고 더 높이,
 더 높이 올리라고

손짓하는 조립공의 모습이 성
 수가 나서 스위치를 넣으며
 보조계에 우물짓는 운전공
 처녀가

자손대대로 복 누리고 살
 새집받는 행복한 얼굴들이

그때 락원기계공장에서 아버지가 단야공의 이름으로 써서 발표한 시의 한구절이다. 이외에도 많은 시가 노동자신문을 비롯한 수많은 출판물들에 발표되었는데 저작권이 없었다는니, 여기서 도대체 시비질을 끝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밝혀둔다. 우리 나라에는 설사 그가 죄를 진 사람이라도 저작권을 빼앗는 법이 없다. 아버지에게는 그때 작가동맹 맹적이 없었던것이다. 맹적을 가지자면 두사람의 보증이 필요한데 남조선에 고향을 둔 아버지에게 그 때 자기를 전위시인이라고 추어올리던 사람들밖에 보증해줄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

리유인죽은 아버지가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발표한 시때 문이었다. 《나는 불우한 식민지조선의 지주집자식, 해방과 함께 아버지를 잃었으니,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잡고 저 항쟁의 거리 환희의 거리로 달려나갈수는 없느냐》

제 아버의 얼굴도 못 본채 어른이 되어버린
 손자와

손자가 너무도 제 아버를 닮아
 자꾸만 마음이 저릿해오는 늙은 할머니가
 마당가에 함께 서서 철새를 보고있다

달은 뉘엿뉘엿 산머리에 걸었는데도
 철새들은 날아와 어느 강가에 내리려는지
 날개를 쭈욱 퍼며 매돌아본다

철새의 등에 실려 흘러간 세월은
 일흔번의 겨울이요, 일흔번의 봄인데
 남북의 길은 하늘에만 열려있어
 할머니와 손자는 땅이 서럽다

오늘도 귀전에는 말이 많아
 권세를 물쓰듯 하는 무리들은
 저희들만 통일을 가져온다고
 떠돌이 옛장수처럼 뉘쳐대고있지만

흐르는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듯
 한곳으로 모아야 할 만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줄에 얽매여있어

혈육의 몸부림을 겹겹이 싸안고
 할머니와 손자가 철새를 보고있다

(작가 김상훈의 시 《절새》에서)

하는 내용의 시가 문제라는것이다.

자기들도 물론 왜정때 사각모자를 쓰고 공부한 부자집자식입은 부인하지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지주집자식이라고는 웨치지 않았다는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사실 나의 아버지는 지주의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그러니까 나의 친할아버지는 독립군에 희망을 두고 따라다니다가 가산도 거덜내고 인생도 망친채 술과 함께 어느 추운날 영영 얼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나의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사는 남편의 종가집에 양자로 빼앗긴 불우한 녀인이었다.

씩 세월이 흐른 후 내가 왜 그때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은적이 있다. 아버지는 오랜 버릇대로 두손가락으로 코날을 자꾸 만지면 서 장성한 아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것도 아니였고 나 자신도 구태여 그것을 까밝히기가 싫었다. 물론 나는 철이 들면서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닌 빼앗긴 식민지이고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닌 서러운 입양아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는 양가집에

서 친아들이 태어난 후였다. 내가 비단이불을 덮고 호의호식할 때 담너머에서 구슬피 울던 녀인이 제 어머니였다는것을 알게 된 내 마음이 어땠겠니! 이걸 아마 부러울게 없는 지주집 아들이 혈혈단신 공산주의자가 된 동기가기도 하다.

그래서 구학문과 봉건의 질곡같은 서당도 다 집어던지고 서울에 올라가 공부도 하고 사회주의적도 읽고 감옥에도 잡혀가고, 그러다가도 어쩌다 고향에 내려가면 소소리높은 양가집대문우엔 〈공산주의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무서운 글자가 써있었다. 곡성이 터져나오는 대문안에선 양어머니가 빨강이자식놈의건 현혈맹이도 보기 싫다며 내 어릴적 입던 옷가지들을 마구 내던졌는데 주섬주섬 집어보면 그속엔 옛가락도 있고 뽕뽕 쓴 돈도 있었다. 난 그걸 야멸차게 훑어버릴 힘이 없었다. 더구나 자식이 말은 양가집에서 나를 일찍 잘가 보내여 거기엔(남조선) 네 형과 누나들-내 자식이 다섯이나 있다.》

아버지는 슬머시 고개를 돌리는데 잔등이 자꾸만 가늘게 떨리었다.

김 종 설(김상훈의 맏아들)
 2015년 2월 6일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사랑과 정을 받으며

지난해 복체류시 나는 신문 《청년전위》를 보면서 하나의 기사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땄수 없었다. 글의 내용은 학교선생이 자기가 딸은 학급의 부모없는 아이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운 이야기였다.

그런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을 꼭 만나고싶은 충동으로 나는 그를 찾아가다.

나는 30대 중반, 군사복무를 거쳐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고급중학교 교원으로 배치받은지 2~3년밖에 안되는 젊은 청년이었다. 폐기가 넘치고 정열에 차있던 그의 모습이 퍼그나 인상적이다.

석철이 딸은 학급에는 부모를 잃은 혁철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일은 그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숙이 탄 석철은 여러날동안 밤을 새워가며 안 가본 곳이 없었다. 그러던중 해당 기관에서 혁철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슴은 철렁했다.

《제 잘못이 큼니다. 책 읽고 교양하겠으니 믿어주시십시오.》

진정어린 목소리였다. 석철은 결심했다. 혁철이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리라.

해당 기관에서는 오랜토의 끝에 젊은 담임교원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혁철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늦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혁철이, 대개 고아들이 그

러하듯이 선입견이 강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줄 때마다 동정을 받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점차 성격이 거칠어졌다.

석철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것은 혈육의 정임을 느꼈다. 석철은 혁철이를 데려다 키울 결심을 하였다. 허나 선뜻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년로한 할아버지와 직장일로 바쁜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는 집안사정때문이었다. 어느날 밤 석철은 아버지, 안해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혁철이를 우리가 키우면 안되겠습니까?》
 《부모없는 아이들을

저마다 데려다 키우는 고마운 제도에서 우리가 살고있지 않나.》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홀로 살면서도 아들, 며느리가 딸은 일을 잘 하도록 말없이 뒤바라지를 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에서였다.

《성권이 아버지, 우리애를 주유치원에 보내는게 어때요? 그러면 혁철이에게 손이 더 갈수 있지않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리해해주는 안해 윤경이도 정말 고맷다. 이날부터 혁철이는 소박하면서 인정많은 가정의 한식술이 되었다. 만경대구역 당상1동 4인민반 10층 2호가 그의 새 보금자리였다.

석도 마련해주었다. 안해는 밤늦게 돌아와서도 혁철이의 빨래를 잊지 않고 해주곤 하였다. 석철은 그가 체육과 음악에 취미가 있다는것을 알고 축구공과 축구화, 기타도 사다 주었다.

그후 혁철이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한것으로 하여 모범청년동맹원으로 등록되고 표창장까지 받

았다. 석철이를 만나 그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에 끌리고 정에 묻혀 사는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이 땅에는 얼마나 따뜻한 정이 흐르고있는가.

재미동포 김경라



로라스케이트장에서

후대중시와 아동학대의 두 현실

한세기전 이름난 소년운동가였고 작가였던 방정환은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였다.

《...어린이를 어른들보다 더 높게 대접하시오. 어른은 뿌리라 하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뿌리가 근본이라고 우에 올라앉아서 싹을 내리누르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싹을 위해 키워주어야 그 나무는 뻗어나갈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아끼고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서 사회와 민족의 미래

커만 가는 웃음소리, 높아가는 울음소리

불과 몇년동안에만도 북에서는 회한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수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 많이 일어났다. 개진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유류아동병원, 평양유아원과 애육원...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만 놓고보더라도 꼬마주인공들을 위한 《고급호텔방》들은 물론 수족관, 조류사, 등산지식 보급실, 요리강의실에 물놀이장, 거울집, 각종 유희오락장까지 갖춘 세계일류급야영소인데다가 이곳을 찾은 아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송도원역이라는 전용역까지 새로 꾸려졌다.

마치 아이들이 《왕》이라고 되는듯하다. 우대, 존대라는 말은 아이들을 위해 생겨난 듯 제일 좋고 훌륭한 모든것이 아이들에게 차례지고있다. 햇빛과 아늑한 보금자리마다는 락아스, 유치원, 학교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첫물과일이며 물고기 등은 우선적으로 아이들에게 공급되고있다. 사랑의 풍우유차는 변함없이 쌍쌍 아이들을 찾아 달리고있다.

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교훈적으로 새겨주는 의미있는 말이다.

아이들은 가정의 미래이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다.

거울속에 비쳐진 얼굴처럼, 상상화처럼 아이들을 통하여 사회의 진면모를 알고 앞날을 예측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과 남은 너무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사람이 즐겁고 만족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는데 이처럼 사랑과 관심속에 떠받들려우는 아이들이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드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차례지는 북이 낱이 늘어나고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커만 가니 북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욱더 커가고있다.

반면 남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지난해 진도앞바다에서는 비판과 절망에 젖은 아이들의 애절한 통곡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점점 깊숙이 수장되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물속에서 살려달라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목놓아 울부짖던 아이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자기 동무들을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며 씩씩어삼키던 그 피눈물, 눈 편히 뜨고 죽어가는 자기 아이들을 처절히 바라보며 원한에 차 터뜨리던 부모들의 그 통곡소리가 아직도 귀전을 에인다.

또 다른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허비고있다. 지금

남쪽에서는 어린이학대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인천시 연수구, 울산시 북구,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등 각 곳의 《어린이집》들에서는 보육원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더러운 수건을 아이들의 입에 집어넣는가 하면 뛰여놀지 못하도록 침대에 묶어놓고 《도깨비방》이라 불리우는 어두운 방에 오래동안 가두어 벌을 주는 등 학대행위가 끊길줄 모르며 심지어 어린이들의 팔과 다리 등을 바늘로 찔러 고통을 주는 상습적인 폭행들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귀신도 경악할 이

사랑의 토양, 메마른 대지

북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에서는 울음소리가 높아가는 판이한 두 현실은 어디에 기인하는것인가.

그것은 사회풍토, 정치와 멜수 없이 연관되어있다.

북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부르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떠받들고 있다.

아이들을 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피는것은 그 사회의 따뜻함을 보여주는것이다.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더욱 꽃피듯 사회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아이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높아가는 법이다.

북은 사랑이 넘치는 나라이다. 정도자가 인민의 행복을 위해 사랑의 정치를 베풀고 모든 제도와 시책이 인민사랑으

로 일관되어있으며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 호상관계도 사랑으로 가득차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대화원에서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큰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있다. 정도자는 아이들의 웃음에서 기쁨을 찾고 인민들은 아이들의 웃음에서 행복의 밝은 세상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사랑의 풍토에서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행복동으로 떠받들리고있다.

북은 미래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미래를 사랑하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라

는 구호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좌우명처럼 새겨져있다. 구호에 반영된것처럼 비록 오늘을 락을 크게 누리지 못해도 더 밝은 미래와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이 공화국의 정책이고 사람들의 인생관으로 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매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은 다름아닌 아이들이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국가와 인민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문제로 보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리고있다. 정도자가 전국의 1만명에 달하는 학생소년들을 수도 평양에 초청하여 성대한 국가적행사를 마련해주고 몸소 대화에도 참석하시어 학생소년들은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는 사랑과 고무의 연설도 하신것은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북에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상정시켰고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제일먼저 학교부터 일떠세웠으며 단 1명의 등대섬아이를 위해서도 학교가 따로 서고 선생이 배치되는 전철같은 이야기도 생겨났다. 아이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국가가 천만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은 한점의 구김살없이 밝게 웃으며

인간의 본성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인 아이를 아끼

고 돌보아주는것마저 부담시키고 그래서 애당초 결혼과 가정, 아이를 포기하는 《3포세대》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후대를 사랑하고 미래를 중시하는 투철한 관점이 없기때문이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가 범람한 사회, 너 아니면 나라는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후대라는것은 뒤전의 일이고 아이들은 말그대로 풀치거리, 한갓 돈벌이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부모의 버림과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정도, 사랑도, 따스한 온기도 모든것이 메말랐고 《정권》이 들어서서 《어린이보육조건의 개선》등을 요란히 떠들지만 실현된것은 없다.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사랑보다 중용, 인정보다 돈이 우위에선 이런 메마른 대지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피어날리 만무하다.

일제기 방정환이 말한것처럼 어린이들을 높이 떠받들면 그 사회는 푸르싱싱한 거목처럼 생기를 띠고 진도도 밝은것이요 그 반대라면 썩고 병들어 스러져가는 나무처럼 앞날이 어둡기마련이다. 진정한 곳은 어디이고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세상이 밝은 인권세상이고 미래가 있는 세상이다.

래일을 락관하는 강직한 사람들의 송고한 사랑과 존중에 떠받들려 사는 아이들의 밝고 밝은 모습, 이것이 더욱 번영할 공화국의 미래상이라면 약육강식의 장골의 법칙에서 어떻게 해서나 살아보려는 아이들의 눈물과 그늘진 모습이 바로 어두운 남조선의 미래상인 것이다.

한편 남조선은 어떠한가. 인간의 본성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본성인 아이를 아끼

고 돌보아주는것마저 부담시키고 그래서 애당초 결혼과 가정, 아이를 포기하는 《3포세대》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후대를 사랑하고 미래를 중시하는 투철한 관점이 없기때문이다. 나만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가 범람한 사회, 너 아니면 나라는 약육강식이 판을 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후대라는것은 뒤전의 일이고 아이들은 말그대로 풀치거리, 한갓 돈벌이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부모의 버림과 사회의 관심밖에 밀려나 온갖 멸시와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정도, 사랑도, 따스한 온기도 모든것이 메말랐고 《정권》이 들어서서 《어린이보육조건의 개선》등을 요란히 떠들지만 실현된것은 없다.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사랑보다 중용, 인정보다 돈이 우위에선 이런 메마른 대지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피어날리 만무하다.

일제기 방정환이 말한것처럼 어린이들을 높이 떠받들면 그 사회는 푸르싱싱한 거목처럼 생기를 띠고 진도도 밝은것이요 그 반대라면 썩고 병들어 스러져가는 나무처럼 앞날이 어둡기마련이다. 진정한 곳은 어디이고 어두운 곳은 어디인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세상이 밝은 인권세상이고 미래가 있는 세상이다.

래일을 락관하는 강직한 사람들의 송고한 사랑과 존중에 떠받들려 사는 아이들의 밝고 밝은 모습, 이것이 더욱 번영할 공화국의 미래상이라면 약육강식의 장골의 법칙에서 어떻게 해서나 살아보려는 아이들의 눈물과 그늘진 모습이 바로 어두운 남조선의 미래상인 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최근 남조선에서 현 당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가 대대적으로 벌어져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현 《정권》이 집권한지 2년이 되는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현 집권자를 비난하는 삐라가 청와대주변거리들에 뿌려지는 속에 서울과 부산, 전라북도과 경상남도, 지어는 현 집권자의 고향인 대구에서까지 뿌려지고 그 량도 수만장에 이르렀고있다.

《국정원》대선개입, 불법부정선거의혹, 사실로 확인, 박근혜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중복》, 반《국가》 행위》, 《박근혜도 《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입니다》, 《강탈해간 《대통령》 자리 돌려달라》, 《부정선거, 당선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글들이 실린 삐라들에는 현 집권자를 풍자한 만화, 사진들이 함께 게재되어있다. 지난 9일 광주시에서는 집권자가 일본기모노를 입고 요염하게 돌아치는것을 비난조소한 그림과 함께 《나라꼴이 잘 돌아간

다.》는 글이 적혀진 삐라가 뿌려져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들였다고 한다.

남조선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삐라살포투쟁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과 파쇼통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책동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현 당국의

《삐라시대》가 시사하는것은

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기 바쁘게 이전 《유신》독재시기에 북부하던 《유신》잔당들을 자기 주변에 배치하고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현 집권자는 《유신》독재자의 독재통치방식의 본을 따 정보원을 대폭 강화하여 《정보정치》, 《공안통치》로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진보세력들을 《중복파괴책》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있다. 지어는 《유신》독재자가 제창하였던 《대화하는 대결》이니, 《새마을운동》이니

하는 온갖 《유신시대》의 찌꺼기들을 전부 뒤살려놓고있다. 그것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 남조선의 각계가 현 당국을 《21세기형 박정희 《정부》》라고 비난하며 《《유신》이 부활하였다》》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원래 남조선에서의 삐라살포투쟁은 《유신》독재시기 민주화를 위해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벌리던 대표적인 투쟁의 한 표현형

태였다.

현 보수당국이 《유신》을 부활시켜 파쇼독재를 실시하고 조통치방법을 이어가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은 현 시기를 《유신시대》로 락인하고 그때의 투쟁방식인 삐라살포투쟁을 벌리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의 인터넷에 과거 《유신》독재시기에 뿌려지던 삐라가 2015년 서울 명동의 하늘을 수놓고있다. 30년전으로 돌아가 같은 기분이다, 사회분위기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니 투쟁방식도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글들이 수없이 떠오르고있는것은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가관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각계층의 삐라살포투쟁과 관련하여 《시급한 대책을 세우라》, 《제때에 소각하라》, 《빨리 주모자를 색출하여 처지시라》.라며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분주당을 퍼우면서 류레없는 폭압광풍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광풍을 《표현의 자유》로 국구 비호두둔하고 부추기던 보수당국이 민심의 정의로운 삐라살포투쟁을 탄압하는것은 그들이 떠드는 《표현의 자유》란 동족

대결의 《자유》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삐라살포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2중적행동은 그들의 철면피성과 대결정체를 날 날이 교발하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유신》독재시기에 등장하였던 《삐라시대》가 현 《정권》에 와서 또다시 출현한것은 보수당국이 시대와 민심을 거역하며 계속 반역의 길로 나간다면 《유신》독재자처럼 수직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을 알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경고이다. 김응철



친미사대 굴종과 동족대결의 극치

진짜테로는 《키 리졸브》, 《독수리》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5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가 김기종이라는 남조선주민으로부터 칼세례를 받았다. 시민단체인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은 미국이 남조선군과 야합하여 벌린 합동군사연습때문에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북남관계문제가 풀리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에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이번 사건을 단행했다고 주장하고있다.

CNN, AFP를 비롯한 외신들은 수십년간 군사적으로 침에하게 대립되고 있는 북남사이의 갈등과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이 이번 사건을 초래한것이라고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상에서도 《박근혜에게 묻습니다. 우리 국민이 소중한가, 미국인이 소중한가.》, 《김기종씨야말로 진정한 애국자》, 《〈정부〉는 지금 당장 〈한〉 미동맹 폐

기하고 주 〈한〉 미군 철수시키라.》라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그런데 지금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테로》로 매도하면서 이 기회에 진보에국세력, 통일세력에 《중북》의 감투를 뒤집어씌워 탄압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번 사건은 일어난 경위로 보나 시기로 보나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북침공격전쟁연습이 초래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공화국과 남조선의 리성있고 량심있는 단체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경고와 규탄을 보냈는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 목소리를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것은 자명하다.

김기종이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경고를 보낸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면서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증오의 표시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일어났던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대구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서울의 미국대사관습격사건을 비롯한 반미투쟁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이번 미국대사습격사건은 남녘민심의 정의의 심판인것이다.

이것을 《테로》라고 할수 있는가. 이 땅과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몰아오는 불구름을 막아내려는 의로운 행동이 《테로》라면 해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들이미는 행위는 과연 무엇이

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인적, 물질, 정신적피해와 재난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도 갚을수도 없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저지하는 정의로운 행동은 절대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증오의 표시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일어났던 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과 대구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서울의 미국대사관습격사건을 비롯한 반미투쟁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이번 미국대사습격사건은 남녘민심의 정의의 심판인것이다.

이것을 《테로》라고 할수 있는가. 이 땅과 우리 겨레의 머리위에 몰아오는 불구름을 막아내려는 의로운 행동이 《테로》라면 해마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 첨단핵전쟁장비들을 들이미는 행위는 과연 무엇이

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인적, 물질, 정신적피해와 재난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도 갚을수도 없다.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연습을 저지하는 정의로운 행동은 절대 핵전쟁의 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증오의 표시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참을수 없는 중대도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지금 남조선에서 미국대사습격사건을 계기로 《중북》소동과 반공화국대결광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보도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보수패당이 매일과 같이 어증이떠중이 극우보수장패들을 내몰아 《중북세력규탄국민대회》니 뭐니 하는 집회를 벌려놓고 극도의 반공화국대결광판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어버이런합》의 산송장들과 《교열제전우회》를 비롯한 극우보수장패무리들이 런던 서울 한복판에 쏟아내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망동을 부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수당국의 사측하에 감행되고있는 극악한 광란은 우리에게 참을수 없는 중대도발이며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 행위라고 하면서 보도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이번에 남조선에서 일어난 미국대사습격사건은 날강도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려놓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본사기자

《더러워서 이 나라 떠나야지》

남조선에서 미국대사가 징벌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갖은 비굴한 추태를 부리는 당국에 대한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한 주민이 리퍼트에게 개고기를 전달한것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에는 《〈한국〉식의 불편한 친절》,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개고기를 가져다주는 호의》, 《리퍼트가 징벌당한 3월 5일을 〈리퍼트의 날〉로 정하고 한달동안 술안주로 개고기를 먹자.》 등의 야유하고

조소하는 글들이 넘쳐나고있다. 그런가하면 《초블로도 안되고 평화시위로도 안된다면 〈한〉반도의 전쟁기지를 막는 방법은 〈한국〉을 우습게 보는 강대국들에게 강한 제스처를 주는것》이라며 《자기들의 실패작인 군용품을 우리에게 팔아먹는 미친 백인우월주의자들한테는 한방 먹여주는게 좋다.》는 글들도 오르고있다.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리익, 생존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맹담하던 남

조선당국이 이번 사건을 놓고는 하늘이나 무너진 것처럼 떠들어대며 비굴한 아첨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아덴만의 〈영웅〉 석선장은 국가가 2억원 못주겠다고 〈아주대병원〉에 〈먹튀〉했다.》며 《자국민은 개자식? 더러워서 이 나라 떠나야지》라는 글과 함께 《박근혜에게 묻습니다. 우리 국민이 소중한가, 미국인이 소중한가.》라는 글들도 쏟아져나왔다.

본사기자

기이한 풍경

지금 남조선에서는 분노한 민심의 징벌을 받아 미국대사가 얼굴에 좀 상처가 난것을 가지고 큰 란리가 일어난것처럼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함께 보수언론들과 단체들, 오직의 장관들까지 줄줄이 나서 《위로》, 《병문안》이요 하면서 《사과대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해외행각에 나섰던 남조선집권자까지 돌아오는 길로 병원으로 찾아가 《의연하고 담대한 모습》이니, 《큰 감동》이니, 《〈한〉 미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니 하면서 갖은 아양을 떨었다.

지어 일부 보수정객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용서를 빈다.》느니, 《대사의 패우》니 하면서 그 무슨 《석고대피단식》이라는 해피한짓까지 벌여놓고있다.

이번 사건이 삶의 보금 자리를 포연이 자옥한 전쟁연습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국에 대한 쌓일대로 쌓인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때 남조선의 집권세력과 정치권, 보수단체들이 높아대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수백명의 아이들을 신고 제주도도 향하던 려객선 《세월》호가 바다속에 통채로 수장되는 특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것은 이미 내외도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1년이 되어오는 오늘날까지 그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있다.

꽃망울도 피여보지 못한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어린 자식들을 놓고 청와대를 향하여 피라는 절규를 토하던 유가족들을 그처럼 랭혹하게 대하며 만나주지조차 않던 남조선보수당국이었고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놓고 몸부림치는 부모들앞에서 자기 배나 불리며 강건너 불보듯하던 장관들이었다.

그런자들이 지금은 미국대사가 칼침 좀 맞았다고 무슨 큰일이나 난듯이 소동을 피우고있다.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가 백주에 길가던 두 어린 녀학생들을 깔아죽여 권세력과 정치권, 보수단체들이 높아대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은 어느 하나 슬픔의 눈빛 지어 동정의 눈빛조차 보이지 않고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오히려 뒤끝방에서 시위자들을 탄압할 흉계나 꾸미고있다.

바로 이러한자들이 이번 사건을 놓고 마치 하늘이나 무너지기라도 한것처럼 놀아대며 역스러운 아첨을 다하다 못해 《석고대피 단식》이라는것까지 벌여놓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친미사대로 망

력으로 돌아가는 테로의 왕초 미국에 대한 통쾌한 징벌이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영 반대이다.

미국대사를 징벌한 김기종은 《테로분자》, 《중북주의자》로 락인되고 지어 《정신병》 진단까지 받는 형편이다. 미국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기자는 《영웅》으로 떠받들리는

하지만 그 기자는 일약 이라크만이 아닌 《아랍세계의 영웅》, 《이슬람교의 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 그가 던진 신발은 《반미의 상징》으로 되었다.

수리아의 수도 한복판에는 《오 영웅적인 기자여, 그대의 행동에 감사합니다.》라는 대형구호가 걸리고 리비아의 유명한 단체는 그 기자를 《용기의 메달》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자가 던진 신발을 1 000만 US\$에 사서 《자유의 상징》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왜, 이라크를 침략하고 폐허로 만든 침략자, 《반테로》의 미명하에 이슬람교를 모독하고 이슬람교자체를 《테로》세

해가는 남조선의 차마 눈 뜨고 못 볼 풍경이라 해야 할것이다.

자기 땅에서 사는 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외세인 미국에 빌붙어 지금 이 시각에도 갖은 비굴한 추태를 다 부리는 남조선의 집권세력과 보수정객들의 행위는 남조선이야말로 미국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이고 미국대사는 현대판식민지 총독임을 남김없이 웅변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명성

력으로 돌아가는 테로의 왕초 미국에 대한 통쾌한 징벌이었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남조선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영 반대이다.

미국대사를 징벌한 김기종은 《테로분자》, 《중북주의자》로 락인되고 지어 《정신병》 진단까지 받는 형편이다.

미국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라크기자는 《영웅》으로 떠받들리는

하지만 그 기자는 일약 이라크만이 아닌 《아랍세계의 영웅》, 《이슬람교의 영웅》으로 떠받들리우고 그가 던진 신발은 《반미의 상징》으로 되었다.

수리아의 수도 한복판에는 《오 영웅적인 기자여, 그대의 행동에 감사합니다.》라는 대형구호가 걸리고 리비아의 유명한 단체는 그 기자를 《용기의 메달》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기자가 던진 신발을 1 000만 US\$에 사서 《자유의 상징》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왜, 이라크를 침략하고 폐허로 만든 침략자, 《반테로》의 미명하에 이슬람교를 모독하고 이슬람교자체를 《테로》세

비굴한 추태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에 묻건대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한 지난 70년간 남조선인민들을 《들취》, 《평》이라고 멸시하고 사랑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으며 남녘로소가 구별이 없고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이 감행한 범죄에 대해 과연 사죄를 받아본적이 있었는가.

메기름, 포르말린, 벤졸, 교열제 등 미군기지에서 쏟아져나온 독성물

배상금을 고사하고 《유지비》를 더 섬겨바치며 미군영주둔을 구걸한 것도 다름아닌 친미사대에 환장한 보수집권세력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민족의식이 이 정도로 한심하고 친미굴종의식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과연 남조선의 현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그 사회는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해치면서 엄

의 표시가 아니라 전쟁의 원흉, 평화의 교살자이며 70년동안 남조선을 강점하고 갖은 악행을 저질러온 침략자 미국에 대한 징벌이며 쌓이고쌓인 민족적분노의 폭발이다.

그것은 《새누리당》 대표가 《〈한〉 미동맹의 심장을 겨누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실로한것처럼 《빛썰름없다.》는 미국과의 《동맹》에 파멸구를 내는 칼벼락이고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반미감정에 불을 다는 의거이다.

김기종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애국가》라고 평하는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사대대장부답다.》, 《악행을 일삼던 미국의 얼굴에 금이 갔다.》, 《칼이 아닌 폭탄을 들었어야 했다.》고 하고있는것도 우리 민족과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악의 원흉 미국을 징벌한데 대한 응당한 평가인것이다.

보수집권세력이 이번 사건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온 뒤의 땅이 굳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남조선에서 더저울을 반미의 화산은 그 《비온 뒤의 땅》을 짙짙 갈라터지게 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과연 《테로》인가

만평 누가 더 귀중한가?



북남관계를 도륙내는 북침핵전쟁연습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외세와 함께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와 아량,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도적이 제 발이 저리라고 남조선당국은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남관계와 별개의 문제라고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이 연습이 명백히 북침핵전쟁연습이라는 것은 그 내용만 놓고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국남조선 《련합사령부》가 주도하며 《작전계획》을 점진하는 지휘소훈련이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수 있는 《작전계획 5027》만 보아도 그것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집결시켜놓고 공화국의 공중과 해상, 국

경을 봉쇄하는 단계, 공화국의 전략적목표들에 대한 타격단계, 북진 및 대규모적인 상륙작전단계, 점령 및 군사적통치체계의 확립단계로 되어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제창해대고있는 이번 전쟁연습의 그 무슨 《방어적 성격》이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핵선제공격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외피이며 《년례적》이라는 요철은 북침의 불의성을 은폐해보려는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련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한마디로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추후도 용납할수 없는 전쟁도발장기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

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더욱 강렬해지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공화국정부는 올해에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데 대한 중대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것은 조국해방 70돐,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의지의 발현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을 우롱, 모독하고 체제대결, 비렬한 《인권》소동 등으로 동족대결책동을 더욱로 끝화하였다.

그러다가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도 없이 공화국의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해나섰다.

현실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고 동족과 대결할 흥심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어느 순간에 불과 불이 오갈지 알수 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집경으로 치닫고있다.

전쟁화약고에 불을 질러놓고 단전을 피우며 《대화》라령에 악착을 들구어야 그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루이 자주 기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처참하게 도륙내고 전쟁의 화를 불러들이는 후과가 그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현은경

그 운명 비참하리라

김윤식

3월의 하늘가엔 봄기운 짙은데 대결의 찬바람 어지럽게 일쿠며 저 남녘땅에서 들려온다 《키 리졸브》, 《독수리》 전쟁연습의 미친듯 한 총포소리가

참으로 천금같은 기회였다 뜻깊은 올해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공화국의 성의넘친 제안은 허나 끝내 스스로 차버렸구나 북침전쟁의 하수인들은 핵참화를 부르는 불장난으로

우리는 본다 친미사대와 굴종을 체질화한 침략자 미제의 식민지노복 그 주구들의 가련한 처지를 외세와 함께 파멸의 구렁이를 파는 전쟁머슴군들의 꼴꼴을

가스롭다 그 무슨 《제거》와 《점령》을 떠드는 아메리카정신병자들에게 추종하여 동족대결에 환장한 민족반역의 무리들

《대화》와 《관계개선》, 《공동번영과 평화》 나발은 북침전쟁의 내막을 가리우려는 백주의 새빨간 거짓말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대결의 흥심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리 전쟁의 화를 스스로 불러온 그 만고죄악의 후과를 관계개선의 길이 아니라 관계파탄의 길을 선택한 그 운명 그지없이 비참하리라

올해의 합동군사연습이 더욱 위험한 이유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4일 《올해 (키 리졸브) 훈련이 더욱 위험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면서 조선반도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올해의 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먼저 미국의 대조선강경정책의 위험성이 분명히 드러나며 북미갈등이 고조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년초부터 북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선비핵화를 강박하였다.

북이 합동군사연습의 중지와 관련한 제의를 하였지만 오바마는 《북붕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와중에 《키 리졸브》 훈련을 강행하여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미간 대립을 해소할 길이 묘원해질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가 북남관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집권 3년을 맞이하였기때문이다.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말잔치만 있을뿐 지난 2년간 변변한 대화 한번 해본적 없다.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뼈라살도문제에 대

한 태도, 《통일준비위원회》나 《통일헌장》 론란에서 보듯 《체제통일》을 추구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남북관계는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져있다.

이렇듯 북미간대결이 심화되고 남북관계의 출로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키 리졸브》 훈련이 북의 반발과 조선반도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을 불러올것은 불보듯 뻔하다.

글은 계속하여 남조선미국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각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주일보》가 자주, 민주, 평화, 민생, 진실을 위한 언론활동을 벌여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자주일보》 대표 리정섭은 신문이 분열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전쟁연습과 동족대결을 반대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

레는 물론 세계의 량심이 지지하는 7.4공통성명과 조국통일3대원칙,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사실과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여성노동자들의 한심한 처지 남조선신문이 폭로

남조선 《경향신문》이 9일 남조선여성노동자들의 비참한 실태를 폭로하는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8일 녀성들의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이 전개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 남조선녀성들의 인권과 지위를 놓고 불매 여전히 경고하는 빨간 불이 켜져있다고 지적하였다.

녀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세계 최하를 기록하고있다고 밝혔다.

더욱 비참한것은 비정규직녀성노동자들의 실태라고 하면서 전체 녀

성노동자의 57.3%가 비정규직이고 그 가운데 28%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무리 일해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것이 녀성노동자의 처지》라는 녀성노동자들의 웨침이라고 언명하였다.

녀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정부》가 녀성들에 대한 반노동정책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죽음을 권고하는 사회

힘들어하는 장소에서 차디찬 추위에 떨며 왜 통성투쟁을 벌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돈이 없으면 한 톨도 살수 없는 곳이 바로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이다.

몇푼의 돈을 벌겠다고 뼈빠지게 일을 하였지만 차레지는것은 불법하고, 결국 죽어가는것이 작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고 모든 재부가 1%도 안되는 돈있는자들의 소유물로 되고있는 남조선에서 바람앞의 초불같은 인생을 지켜보겠다고 통성투쟁에 나서고있는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생리의 막바지에서 애달픈 호소와 항의를 보내도 당국과 회사, 기업체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인간사회에서 물질적부를 창조하는것은 근로인민들이다. 그런것만큼 그들은 향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창조의 주인들의 운명

은 어떠한가. 집게된 자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최고부유층의 소득과 최하층의 소득차이가 해마다 벌어져 2009년에 14.5배였던것이 2011년에는 29배, 지금에 이르러 35배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무슨 《성장》의 막뒤에서 부를 향유하고 누리는것은 극소수의 가진자들에게 한한것이 실지 부의 창조자들인 근로대중은 빈곤과 생활난에 허덕이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넘어섰으며 가정세대들이 진 빚은 년경순소득의 1.7배이상에 이르렀고 주민 1인당 년간세금은 5 200US\$ 이상에 달하고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심히 파괴된 데다가 그나마도 일자리를 빼우고 실업자로 굴러떨어져 거리를 헤매이는 사람들이 무려 390만명에 달하고 수백만명의 비정규직

로동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살고있다. 뒤따르는것은 시시각각 불행과 고통뿐이다.

생존권이 1차적요구로 제기된 이런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가 시위를 벌려보았지만 요구가 실현되지는커녕 통성투쟁이 막막 《정부》로 부터 탄압과 박해, 온갖 멸시와 외면을 당할뿐이다. 그러니 돈이 없어 살래야 살수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어 비판에 잠긴 사람들, 삶의 막바지에 물러 끌리는 절망과 고뇌, 빈민속에 이들이 이르는 최극단은 죽음이다.

《자살명소》, 《자살대교》로 오명높은 서울의 다리들, 하루평균 40여명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 자살자수가 많아 세계적인 자살률 1위, 《자살공화국》으로 비난높은 남조선. 살펴보면 참으로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내포되어있다. 세상에 태어나 삶을 영위하고 기쁨과 행복속에 인생의 락을 누리길 갈망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죽는걸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중시되지 않고 오직 돈과 가진자들을 위한 생활의 논리와 법칙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힘없고 가진것 없는 사람들에게 차레지는것은 불안과 고통, 절망과 비판뿐이다. 그래서 얼마든지 살릴수 있는 수백명 아이들을 죽음으로 고스란히 떠민 《세월》호참사가 빚어졌고 삶을 지켜달라고, 생존권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퍼리지게 절규하다 끝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지금 이 시각도 끊기지 않고있다.

사회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떠밀고 생활이 사람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 진정 남조선사회야말로 죽음을 권고하는 사회이다.

김연희



↑ 해고자복직을 요구하여 굴뚝우에서 통성을 벌리는 남조선노동자들
←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여성들이 좋아하기

《봄향기》화장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는 이 계절 류다른 《봄향기》가 풍기어온다. 공화국 여성들이 애호하는 《봄향기》화장품의 그윽한 향기이다. 살결물, 물크림, 미백영양물, 분크림, 입술연지, 향수와 같은 기초 및 완성화장품들, 세수비누와 치약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봄향기》화장품은 개성고려인삼을 주성분으로 하고 묘향산과 량립산맥에서 자라는 희귀한 천연기능성약재들이 들어있는 다기능성영양화

장품이다. 《약초의 왕》으로 불리는 개성고려인삼에는 칼슘과 나트륨, 칼시움을 비롯한 무기물과 비타민 B군 특히 B1, B2과 함께 아미노산, 글루타민산 등이 풍부히 들어있어 건강과 피부에 대단히 좋다.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봄향기》화장품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성분들과 천연활성물질들이 들어있어 피부를 윤기나게 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며 미백효과가 크다. 《봄향기》물크림과 보습성살결물만 보아도 강한 보습작용으로 피부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잔주름을 없애며 습진 등 각종 피부병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봄향기》미백영양물도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주름살이 생기는것을 막아주며 밤크림 역시 강한 영양제침투로 피부의 피호름량과 단백질, 린지질을 증가시키고 살갗병을 예방하는데 좋다고 한다. 증근속이온이 없고 표준미량원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이상적인 물로 만든 《봄향기》화장품은 피부의 세포재생과 단백질합성을 촉진하고 항방사작용, 항암치료 등 건강과 피부보호방지에 좋아 갈수록 더욱 많은 여성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살이

생겨 신경을 적지 않게 썩었는데 밤크림을 바르면서부터 얼굴이 티 하나 없이 깨끗해지고 윤력이 나면서 훨씬 젊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10년은 젊어보인다고 말한다. 어쩌면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수 있는가고 부러워할 때마다 《봄향기》화장품덕이라고 말해주곤 한다.》 ... 여성들이 너도나도 즐겨찾는 《봄향기》화장품, 아낌없는 찬사속에 봄향기는 《봄향기》화장품들은 그 영양가가 대단히 높아 이미 영국, 프랑스, 에스빠냐,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김준경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완 구

평양민속공원은 중세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쓰던 박격포도 있다. 구조적특성과 작용원리가 탄을 포아구리에 재웠다가 쏘는 곡사포(박격포)의 일종으로서 그 생김새가 바리그릇(완)과 같다고 하여 완구라고 하였다. 완구는 크기에 따라 대완구, 중완구, 소완구 등으로 나뉘어져있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여러가지 포가운데서 완구는 포아구리내경이 특별히 크고 포신이 매우 짧다. 탄을 발사하는 처음 속도가 작고 명중률이 좋은것으로 하여 잘 알려져 있다. 우리 선조들은 완구를 굵은 나무로 짠 네모난 포가(나무함)속에 일정한 자세로 설치하고 발사각을 요구대로 조절해가면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완구의 포신안에서는 길이에 따라 격목통에서부터 포아구리까지 가면서 화약가스압력이 커져가다가 어떤 자리에서 가장 커지고 뒤따라 반대로 작아지다가 포아구리에 이르러 령이 된다. 탄의 운동

속도는 재워졌던 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처음에 천천히 커져가다가 포아구리에 거의 이르는 자리에서 갑자기 커진다. 완구는 조선봉건왕조초기에 국가적으로 설계치수의 규격화와 표준화가 되어 1448년에 《총통등록》에 등록되었다. 완구의 구조는 15세기 중엽까지는 탄을 채우는 포아구리부분과 격목통 및 약통이 하나로 연결된 부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있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16세기말과 그 이후시기에는 아구리부분과 격목통 및 약통이 서로 연결된 한몸통으로 되어있었다. 다른 나라의 철구포들에 비하면 우리 완구는 크기와 질량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며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잘 어울리면서 큰 위력을 내게끔 만들어진 화포이다. 완구에서는 등근 돌탄이나 쇠탄만이 아니라 진천뢰도 재워다가 발사하였다. 완구는 중세기에 외래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산성공방전에서 많이 쓰이였다. 본사기자



속담 말 (3)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다보면 잘못 말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므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
말이란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채로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자주 할수록 점점 거칠어진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말이 많으면 말다툼하는데까지 이룰수 있으니 말을 삼가라고 이르는 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리 남모르게 하는 말도 소문이 난다는 뜻으로 언제나 말을 함부로 하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상식

인체 건강과 기온

기상전문가들이 밝힌데 의하면 사람이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않는 기온은 18~24℃이다. 기온이 33℃인 환경에서 2~3시간동안 계속 일하면 사람의 체내에서 《공기조화기》역할을 하는 땀선의 《스위치가 켜진다.》 기온이 36℃이상 되면 신체는 《경보》를 내보내기 시작한다. 체내에 남아돌아가는 열을 땀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책랭각》을 하는데 이런 반

응은 이미 《경보》가 내려졌다는 신호이다. 기온이 38℃로 되면 땀선으로부터 땀을 내보내는것만으로는 체온을 정상범위안에서 유지할수 없으므로 체내의 여러 장기가 체온을 떨구는데 동원된다.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

—물집이 터지지 않은 상처는 깨끗이 씻은 다음 온도 5℃보다 높은 찬물에 30분간 잠그면 화독이

사람이 견딜수 있는 기온의 림계점은 39℃이다. 기온이 39℃로 되면 인체의 땀선의 활동이 약해진다. 열을 내보내기 위해 쉬임없이 활동한 땀선도 능력이 한계에 달하므로 심장발작위험성이 생긴다. 기온이 40℃로 되면 대뇌에 위험이 조성되며 41℃의 높은 온도에서는 생명이 위험하다.

버섯반찬을 잘 만들려면

버섯으로 요리를 만들 때 1kg의 물에 25g의 사탕가루를 푼 다음 버섯을 12시간 불구어둔다. 그러면 버섯이 빨리 퍼질뿐 아니라 다 만들어진 반찬에서 독특한 향기가 풍겨나오게 된다. 버섯을 잘 씻어야 요리 맛도 좋아지게 된다. 버섯을 손으로 마구 주

워서 상처에 발라주면 소독이 되고 아픔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선한 배를 얹게 썰어 댄 자리에 붙이면 좋다. 물러 씻으면 모래나 흙이 버섯속에 배어들어가게 된다. 버섯을 씻을 때 물에 깨끗한 소금을 좀 넣고 거기에 버섯을 얼마동안 담그어놓았다가 씻으면 버섯에 묻은 모래나 흙 같은것을 깨끗이 씻을수 있다. 본사기자

사화

설 때 (1)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1 자자한 속에 어느덧 14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날 궁녀를 물색하던 궁중의 상궁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쉽게 수궁지 않는 설매의 외숙을 감언리설로 달래었다. 《...장차 기생이나 너승이 되는것보다야 설매의 용모와 행동거지는 갈데 없는 궁녀감이니 어서 승낙하시오이다.》 외숙은 눈길을 아래로 향한채 한참이나 더수기를 꺾적이였다. 《글세말이오이다. ... 궁궐한 생활에 혼기가 지난 설매가 궁녀가 되어 궁중에 있으면 미천한 기생신분이나 너승보다야 어떤하겠소만 장차 어떤는지.》 상궁은 한무릎 다가앉으며 시종 구변 좋게 구슬렸다. 《아니할 걱정이오이다. 호호... 지엄한 궁궐의 궁녀를 언감기생과 너승에 견주라니까. 궁녀들이 궁중안에서의 소입도

들은것밖에는 없었다. 아무리 다시다시 생각해야 궁궐은 나라안에서 제일 높은 담장으로 둘러막혔으며 나리님이 계시는 엄엄한 곳이라는 표상밖에는 없었다. 순간 설매의 생각엔 둘러막힌 담장이 그리도 높고 지엄한 곳이라던 그안의 궁녀들이 궁문밖출입이 막힐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며 조롱속에 간

(풍경정서가 제나름인 춘하추동 네계절마다 동무들과 어울려 재미나게 뛰노는 여기를 어찌 떠난담.) 호랑나비가 나폴대며 진달래, 야생화와 노닐고 하늘가에선 짝을 부르느라 삼씨까듯 노고지리 조잘대는 제 사는 오관산의 봄철이 좋았고 록음이 울울한 만첩청산의 정갈한 계곡수에 얼굴 닦고 미역

을 감는 여름철이 또한 유정하였다. 아울러 오관산 다섯봉우리마다 단풍이 붉게 타고 명월야경에 소색색소리 곡진한 천고마비계절의 가을철은 어쩔수, 또 한 백설강산의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 락락장승

이 독야청청한 겨울철도 잊을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삼간초옥의 가난한 살림이나마 설매에게는 여기가 선경이였으며 자유가 구속될수 있는 궁궐이 결코 극락일수 없었다. 지금처럼 제 사는 고장의 청취를 한껏 느껴본 때는 일찌기 없었으니 진정 꽃밭속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잊은채 레사롭게 흘러보낸 14년의 세월이기도 하였다. 어찌 이뿐이라. 청명, 추석날이면 비명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묘소에 찾아가 금잔디도 곱게곱게 손질하고 포가에 다문다문 흰 야생화도 매만져보며 서럽게 울어보던 설매였으니 감히운 몸 설매는 의연히 옷방에서 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외숙과 상공간엔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런데 히툰이 웃음을 흘리던 상궁은 갑자기 웃음을 짝 가시고 침중히 한마디 건넸다.

《설매가 금년나이 열네살이 옳은가요?》 이 소리에 외숙은 무슨 소리가 하고 찬찬히 마주보며 《어찌 나이를 속이겠소이까.》 하고 급히 록감을 세어보며 말했다. 《명오년생이니... 분명 금년이 열네살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나이는?...》 《궁녀의 선발에서 열세살부터는 숫처녀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게 되더라고요.》 외숙은 순간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숫처녀가 아닌지 틀?...》 하며 놀라운 이야기에 억이 막혀 한참이나 말문이 막힌채 단침을 삼켰다. 상궁은 느릿이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외숙은 《설매가 성격은 활달하오만 이 나이에 벌써 어찌 내 모르게 외간남자와 간통할수 있겠소이까. 천부담만부담하오이다.》 하며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렇게 외풍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지요. 내 상궁이 되어 이십여년에 별의별 예상밖의 일들이 있었지요. 걸보고 속 모르는게 그거라오.》 하며 상궁은 말을 이었다.

